

## 서 평

**김정경** | 여성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과 글쓰기

: 풍양 조씨, 『자기톡여자, 글로 말하다』, 김경미 역,  
나의 시간, 2014

**구기연** | 이슬람과 젠더 이슈를 보는 새로운 시선과 만나다

: 오은경,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정신분석을 통  
해 본 이슬람, 전쟁 테러 그리고 여성』, 시대의 창, 2015



# 여성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과 글쓰기

: 풍양 조씨,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 김경미 역, 나의 시간, 2014

김정경\*

## 1. 글쓰기의 욕망

조선의 여성들 가운데는 자신이 죽거든 살아서 쓴 모든 글들을 태워달라고 아들에게 유언한 이가 있는가 하면, “생각건대 지난 일 지나간 경관은 바로 눈 깜짝하는 한순간의 꿈일 뿐이니, 만약 문장을 써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오늘의 금원이 있었음을 알겠는가.”<sup>1)</sup>라며 글로써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한 이도 있다. 자신의 기록에 대한 태도는 다를지라도 이들은 모두 글을 썼다. 기록을 남기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가와는 별개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쓰지 않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그녀들처럼 때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글을 쓴다. 답답한 마음, 정리되지 않은 생각,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혼잣말하듯 빈 문서나 SNS에 털어놓는다. 마음을 온전히 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쓰지 않고 못 배기는 무언가가 글을 쓰게 만들기에, 그렇게 쓴 글 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순된 생각들이 고스란히 펼쳐져 있다.

풍양 조씨의 「자기록」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일같이 잊지 말고 또 뒷사람들에게 옛 일을 알게 하고자” 썼다지만 이 글 역시 그녀로 하여금 붓

---

\* 충북대 강사

1) 김금원, 『호동서낙기』, 이혜순·정하영 역편,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산문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415~416쪽.

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 21년의 삶 동안 그녀가 겪은 일들만 일별해도 우리는 그녀가 무언가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 2. 애도 문학으로서의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

풍양 조씨(1772~1815)는 18세기 후반 서울에 살았던 무반 집안의 딸로 아버지 조감(1744~1804)과 어머니 하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sup>2)</sup> 그녀는 어려서 둘째 언니와 두 명의 남동생 그리고 11살 때에는 어머니를 잃고 일 년이 채 못 되어 막내 여동생과도 이별한다. 15살 때 동갑인 남편 김기화와 결혼했지만 그 역시 20살에 세상을 떠난다. 『자기록』<sup>3)</sup>은 동갑인 남편 김기화(1772~1791)가 죽은 다음해, 그러니까 풍양 조씨가 21세 때 쓴 자서전 형식의 글로 200자 원고지 500장 분량의 한글 필사본에는 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하여 그녀의 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있다. 박옥주가 발견한 국립도서관 소장 필사본은 원본이 아니라 풍양 조씨의 언니가 베낀 것인데 “서문, 풍양 조씨 자신의 어린 시절과 남편의 죽음을 맞기까지의 본문, 발문 형식의 뒷글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친지들이 쓴 제문과 조씨 언니의 필사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sup>

『자기록』은 고전문학 연구자들에게는 “부모와 부부, 장인과 사위, 시집간 딸과 친정과의 관계 등 가족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18세기 당시 양반가의 생활상을 엿보게 하는”<sup>5)</sup> 흥미있고 유의미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열녀전과 달리 남편의 죽음을 맞은 아내가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할 지 살아야 할 지 갈등, 고민하는 상황”이 담겨 있기 때문

2) 풍양 조씨,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 김경미 옮김, 나의 시간, 2014, 260~265쪽.

3) 이 글은 10여 년 전 박옥주가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실에서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박옥주, 『풍양조씨의 자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2001.

4) 풍양 조씨, 앞의 책, 261~262쪽.

5) 위의 책, 261쪽.

에 “열녀전이 삭제, 혹은 소거한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죽어 열녀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 그 자신의 표현대로 목숨을 흠친[偷生] 여성의 ‘증언’<sup>6)</sup>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하지만 오늘날 「자기록」이 고전문학 연구자들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치있는 작품인 까닭은 역주자가 서문에 밝히듯 “가까운 이의 죽음에 대한 지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문학으로서 충분한 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애통함과 비절함은 죽음에의 예禮,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sup>7)</sup>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 3. 운명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

조씨가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어찌하여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화를 입는 이치가 바뀌”었는가라는 점이다. 그녀는 남달리 고달픈 삶을 산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리며 “아아, 어찌 하늘이 능히 살핀다 할 수 있으며 어질다 하여 복을 더 받는다 하겠는가?”라고 자문한다.

아아, 하늘의 법은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며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화를 입는 것은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늘이 몰라주고 사람의 도리도 변하여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화를 입는 이치가 바뀌어 어진 사람이 수(壽)를 누리지 못하고 덕 있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라 하겠는가? 더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밝은 덕과 인자로운 베품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데도 아들이 귀하고 살아가는 데 고달픔이 남들보다 심했다. 또 돌

6) 위의 책, 261쪽.

7) 위의 책, 7쪽.

아가신 어머니는 너그럽고 밝은 덕을 지니고도 장수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아들 하나도 두지 못하고 뒤가 끊겼다. 아아, 어찌 하늘이 능히 살핀다 할 수 있으며 어질다 하여 복을 더 받는다 하겠는가?<sup>8)</sup>

그녀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화를 입는 이치”가 통하지 않는 “오늘날”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탄식한다. “사람에게 가까운 이로는 어머니 같은 분이 없고 사람에게 소중한 이로는 남편 같은 이 없으며, 사람이 바라는 바로 자식 같은 이 없는데 이미 이 세 가지가 다 끊어”져 “한두 가지 살아갈 즐거움”조차 없는 “천지간 궁한 팔자”<sup>9)</sup>로 사는 그녀는 글을 쓰는 내내 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이렇듯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지 묻는다. 그녀의 의문이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이러한 고민이 비단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뜻 혹은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운명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자기록」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운명에 대처하는 두 명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먼저 조씨의 친정 아버지가 그 중 한분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리고 사위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부터 지극한 정성을 다했으나 간호가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고 온갖 약초와 갖은 약방으로 시험하며 비록 허망한 무당 점이라도 병환에 차도를 얻는다고 하면 마땅히 금하지 않고 다 따르셨다. 필경 변이 나기 오륙일 전에 점을 보니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미 바랄 바가 적으나 요행을 바라거든 옥추경이란 것이 목숨을 늘리는 경이니 백여 금을 들여 읽으시려면 읽고 부질없으면 마소서.” 하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행여 효

8) 위의 책, 11쪽.

9) 위의 책, 12~13쪽.

힘을 보면 천행이고 비록 힘을 입지 못해도 한을 없게 하라.”하며 백금을 들여 경을 하였으나 이미 대운과 하늘의 뜻을 어찌하리오. 비록 힘을 얻지 못할지언정 아버지는 약을 쓰고 돌보는데 극진하지 않음이 없었다.10)

열흘 즈음에 이르러 의원 정생을 불렀으나 평민이 아니라 그냥 오지 않아서 겨우 말을 타고 12일에 가보니 병세를 적(積)으로 잡아 소(消)적(積)이(利)기(氣)환(丸)이란 약명을 냈다. 오는 길에 쌍동에 잠깐 들렀다 돌아와 약을 쓰고자 했으나 먼저는 완전히 양기가 부족해서 찬 것으로 잡고 다스려 불 같은 온제(溫劑)를 쓰고 새 약은 어름 같은 냉제(冷劑)라 소홀히 쓰지 못하여 다시 정의원을 청하고 비로소 김익신이란 의원을 청하여 자세히 물은 뒤 환(丸)으로 된 것을 물에 개어 자셨다.11)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약초와 갖은 약방”을 쓰고 “허망한 무당 점”까지 쳤으며, 사위를 위해서도 수많은 약과 의원 동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자기록」에 자세하게 서술된 아버지의 다양한 시도들은 오히려 그것이 화를 부른 것은 아닌가라는 인상마저 준다. 의원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병명 그리고 그에 따라 변하는 처방들 허약한 환자에게 부담이 될지 모를 보양식까지 「자기록」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은 운명을 피하려는 몸부림이 사실은 그 운명을 향해가는 움직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시아버지, 시할아버지는 운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로 운명을 대한다.

의원들은 이미 지극히 중하게 여긴 듯 싶은데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두

10) 위의 책, 34~35쪽.

11) 위의 책, 68쪽.

어른은 의원이 저희 이름을 내리는 공격으로 아셨을 뿐이다. 무릇 가까운 사이는 도리어 어둡기 쉽고 더욱 굳게 믿기를 장성같이 하시고 비록 하늘의 이치가 순탄치 못하나 선조(先祖)의 공덕과 두 어른의 겸손하고 겸소한 성심이 있는데 이제 와 자손을 어찌 하늘이 차마 앗아가겠는가 하셨으리라. 그러므로 깊은 불길한 염려는 꿈에도 하지 않은 까닭에 의약을 구태여 애써 구하지 않고 스스로 차차 낫기를 기다리셨다.<sup>12)</sup>

시어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비추어볼 때 절대 자신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리 없다고 확신한다. “선조의 공덕과 두 어른의 겸손하고 겸소한 성심이 있는데 이제 와 자손을 어찌 하늘이 차마 앗아가겠는가”라며 “불길한 염려는 꿈에도 하지 않은” 것이다. 끊임없이 하늘의 뜻을 의심하는 조씨와는 다르게 그리고 운명을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친정아버지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운명을 믿고 순응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운명에 순응한 결과 역시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 4. 여성이라는 운명과 글쓰기

남편의 죽음은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사고였을까. 조씨는 “남편의 죽음이 천명(天命)이라 한다면 임종까지 스스로 회복을 기약하지 않았을 것이요, 명이 아니라 한다면 독질을 어찌 얻었으리오.”<sup>13)</sup>라고 묻는다. 운명이란 미리 알 수도 없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록」의 말미에 적힌 내용을 보면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지도 못할 만큼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났음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절망과 회의 그리고 하늘을 향한 슬한 질문들을

12) 위의 책, 69쪽.

13) 위의 책, 112쪽.



다 뒤로하고 운명에 체념·순응하기로 한 것 같다.

허나 위에 시어른이 계시고 몸에 맡겨진 일이 무거우니 스스로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예전처럼 시일을 보내나 하늘에 사무치는 설움과 땅끝까지 이르는 한은 어찌 견디리오. 눈을 뜨면 밝은 세상과 어지러운 소리 스스로 괴로워 밤낮으로 잠겨 있어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시신이 되었으나 한낱 위로할 것이 없으니 유유한 이 세상을 어찌하리오. 나의 남은 해를 생각하니 푸른 머리와 붉은 얼굴이 시들 날이 멀어 남은 세월이 일천 터럭을 묶은 것 같으니 어찌 견디어 살리오. 그러나 사세(事勢)는 이미 끝났으니 하여금 하릴없으나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사람의 수명은 백세가 되지 않으니 나의 세상이 또 얼마리오. 내 이미 목숨을 흠친 뒤에는 집안을 보전하여 후사를 세우고 제사를 받드는 것이 임무이니 원컨대 길이 기대할 만하고 어질고 효성스러운 양자를 얻어 제사를 맡기고 박명한 여생을 의지하고자 하노라.<sup>14)</sup>

「자기록」을 마무리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인용한 것처럼 과연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아무런 의문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시신”으로 남은 생을 살았을까. 그렇다면 「자기록」을 남긴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긴 행위는 그녀가 “시신”으로만 살지는 않았음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할 말이, 따지고픈 이야기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녀의 글쓰기 행위 자체가 그녀 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수행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주어진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녀의 자의식은 너무도 뚜렷하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편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어린 나이부터 확실히

14) 위의 책, 124쪽.

자각하고 있었다.

평소에 아버지는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이목(耳目)의 생김새를 살펴 고르셨는데 우리를 앞에 두고 관상의 빈부(貧富)와 궁달(窮達)을 이르기를 우리 형제가 다 남아(男兒)의 상을 타고 나서 용렬하지 않지만 딸이라 쓸모가 없음을 탄식하고 개탄하셨다.<sup>15)</sup>

“아, 슬프다! 만일 우리 형제가 아들이었으면 상여를 따라가서 문기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했을 것이나 이미 쓸모없는 딸로 집 가운데서 영결하니 외로운 영구가 한낱 상주도 없이 다만 아버지만 상여를 따르고 한낱 형제나 조카도 없으니 상복을 입고 좇는 사람이 없었다.”<sup>16)</sup>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것은 고금(古今)의 폐하지 못할 일이니 어찌 능히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17)</sup>

“...그대는 나를 무심하게 대접하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내가 답하기를 “그대가 비록 곡진하나 아내가 남편을 받들어 중히 여김 같으리까. 세상에 무심한 것이 사내이라 아내가 살아서는 사랑함이 대체로 한가지나 불행히 상처한 뒤에는 새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버려, 옛 사람 잊어버리기를 티끌같이 하니 그대가 비록 지금은 곡진하나 혹 그런 일을 당하면 어찌 홀로 그렇지 않겠으며 능히 의리를 지켜 믿음을 지키리까?”<sup>18)</sup>

“제가 시집와서 어른만 모실 뿐 몹시 고단했는데 이제 저가 다만 제 여종 한 사람과 남의 집에서 고적함을 당하니 제가 당한 것을 가히 앓는 것이

15) 위의 책, 42~43쪽.

16) 위의 책, 36쪽.

17) 위의 책, 41쪽.

18) 위의 책, 50쪽.

라고 놀릴 만합니다.”<sup>19)</sup>

“남아의 상”을 타고났으나 딸이라 쓸모없음을 안타까워한 일, 상주 없이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던 일, 만약 자신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금세 새 사람을 얻을 것 아니냐며 남편을 타박하던 일 등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그녀는 “젖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새 장가, 처가에 거리를 두게 하는 시어른들의 태도를 기록하면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은연중 드러낸다.”<sup>20)</sup> 여성으로 태어나 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여성이기 때문에 처하게 되는 여러 불합리한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적고 있는 그녀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 혹은 체념한 이라 하기 어렵다. 그녀는 누구인지 모를 수신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납득할 수 없는 처지를 토로한다.

## 5. 현대역의 의의

가람 이병기는 1947년 「한중록」의 교주본을 내면서 우리 글월은 내간체, 가사체, 역어체가 있으며 그 가운데 내간체는 “오로지 우리말글을 맡아 오든 부녀들의 글, 이른바 규방문학 가운데 가장 진취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그 가운데 「한중록」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해 뒤 「의유당 일기」의 교주본을 내면서 “이 책은 의유당의 작품을 모은 것으로 「의유당관북유람일기」라기도 하나 기행·전기·번역을 합친 진귀한 한 문집이었다. 의유당은 …… 하찮은 한문 그것까지도 우리말글로 하여 더욱 멋이 나게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병기는 국문학을 정의하고 정리하면서 한글 문학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전에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조선 여성들의 한글 산문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sup>21)</sup>

19) 위의 책, 66쪽.

20) 위의 책, 278쪽.

이처럼 이병기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은 이후로 6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조선의 여성들이 쓴 산문이 과거 한글 문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인다. 60년 전 이병기가 주목했던 지점이 여성들의 기록이 한글 문체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면, 지금의 연구자들은 이 작품들이 그려내는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에 의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한중록」과 「의유당 일기」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 한글 산문들이 발굴되고 연구되며, 읽기 쉬운 현대어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전 산문의 재간행은 역주 작업에 머물러 많은 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전문적인 연구자에게는 원문을 그대로 활자화하여 주석을 다는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일반 독자들이 조선 여성의 글을 즐기기에 그러한 방식은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에서 김경미 선생이 보여준 작업은 이 두 가지 요구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충실했기에 매우 뜻깊고 소중하다.

자기록의 문장은 만연체로 길게 이어진다. 현대역 하는 과정에서 긴 문장을 자르고 가능한 한 읽기 좋은 문장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몇몇 해독되지 않는 단어들 남아 오래도록 붙들고 부심했다. 끝내 알 수 없는 경우 원문에 미상으로 처리했으며, 전후 문맥에 따라 추정하여 해석했을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원본의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여 원문 전편을 따로 수록하기로 하고, 누구나 일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한자를 병기하고 상세한 주석을 달았다.<sup>22)</sup>

21)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혜경궁 홍 씨와 의령 남씨 그리고 「자기록」을 쓴 풍양 조씨가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역주자는 풍양 조씨의 작가적 능력이 그녀 집안 여성의 어문생활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위의 책, 268쪽.

22) 위의 책, 7쪽.

만연체로 길게 이어지는 문장들을 읽기 좋은 단문으로 바꾸고 이해되지 않는 고어들을 현대어로 바꾸는 작업에 역주자가 얼마나 “오래도록 붙들고 부심”했는지는 아래의 짤막한 인용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노 심전의 괴약업슨 일이라 골절을 썬시는 디통이 츠마 견디기 어려워  
 되 설움이 얼굴의 형용치 못하고 우름의 혼을 다 프지 못하되 밥을 당하매  
 빅 불니 하고 베키를 넘하매 편히 자 타연히 설움이 업슴갓치 하고 명연히  
 부즈를 니즌 듯 하니 비록 무지흔 완장이나 엇지 이대도록 하리오마는 우희  
 존당이 계시고 몸의 소탁이 무거오니 스스로 몸을 임의치 못하야 의구히 시  
 일을 보내나 하늘의 스밋는 설움과 싸히 극하는 혼은 엇지 견디리오 눈을  
 쓰매 붉은 세상과 어즈러운 소리 스스로 괴로워 쥬야 즘철하여 불심불멸흔  
 시신이 되어서나 혼낫 위회홀 거시 업스니 유” 혼 이 세상을 엇지하리오<sup>23)</sup>

실노 살아서는 기약 없는 일이라 뼈마디가 썬시는 지극한 슬픔을 차마  
 견디기 어려우나 설움을 얼굴에 드러내지 못하고 울음의 한을 다 풀지 못했  
 으나 밥을 대하면 배 불리 하고 베키를 베면 편히 자면서 태연히 설움이 없  
 는 것 같이 하고 까마득히 그를 잊은 듯하니 비록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이  
 나 어찌 이토록 하리오. 허나 위에 시어른이 계시고 몸에 맡겨진 일이 무거  
 우니 스스로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예전처럼 시일을 보내나 하늘에 사  
 무치는 설움과 땅끝까지 이르는 한은 어찌 견디리오. 눈을 뜨면 밝은 세상  
 과 어지러운 소리 스스로 괴로워 밤낮으로 잠겨 있어 살아 있는 것도 아니  
 고 죽은 것도 아닌 시신이 되었으나 한낱 위로할 것이 없으니 유유한 이 세  
 상을 어찌하리오<sup>24)</sup>

이렇듯 매끄러운 현대역 덕택에 우리는 조씨가 전달하는 사랑하는 이

23) 위의 책, 245쪽.

24) 위의 책, 124쪽.

를 잃는 슬픔, 그들을 보내고 남은 삶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이렇듯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 지금까지는 기존의 장르 규범에 포섭되지 않아 문학사의 주변적 존재로 변방에 위치해 있었다.<sup>25)</sup> 또한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존재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제대로 소개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기에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가 빛을 보게 된 데에는 연구 환경이나 출판 환경의 변화도 일정부분 기여했겠지만 이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애정과 관심이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 김경미 선생이 보여준 우리 옛 여성들의 글과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그것이 지닌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널리 소개되기를 바란다.

이 작업을 필두로 옛 글의 현대역 작업이 보다 활발해져서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게 된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난관들에 옛 여인들의 지혜를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어떤 문제들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를 읽으며 과거에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글을 통해 풀어놓으려던 욕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백여 년 전에도 인간이 자신의 운명 혹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평생 씨름하며 사는 것을 보고, 우리 앞에 놓인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 그들의 글에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아닌 인간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고전이 갖는 힘,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의 역주자 김경미 선생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커다란 선물이라 생각한다.

25) 김경미,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고전여성문학의 성격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9집, 2006, 59쪽.